

FOMC 후 펀더멘탈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 부각 연준,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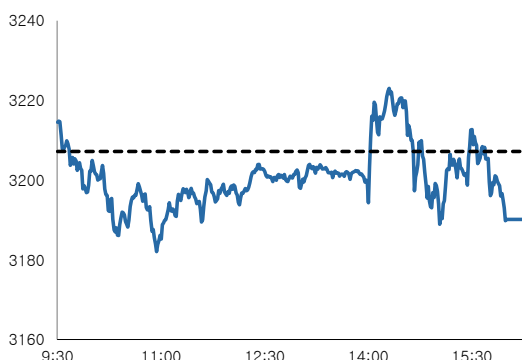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언택트 관련 종목 급등 지속

미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신중론이 부각된 가운데 전일에 이어 일부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 특히 경제 재개로 인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한 점도 부담.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에서 22년까지 금리 동결을 시사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V자형 경기 회복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다우 -1.04%, 나스닥 +0.67%, S&P500 -0.53%, 러셀 2000 -2.63%)

JP 모건이 항공업종에 대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관련 종목이 급락. 경제 재개가 본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등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더불어 경제 재개한 일부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한 점도 부담. 이는 그동안 V자형 경기 회복을 기정 사실화 하며 주가 지수의 급등을 이끈 투자심리를 약화. 한편, 지난 주 1달러 미만 주식들이 무려 79%나 급등. 이는 실업급여 등 유동성에 심취한 투자자들의 행동에 의한 광란의 결과라는 평가 속 우려가 확산 된 점도 시장에 영향.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를 통해 22년까지 금리 동결할 것을 시사하자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더불어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해 6.5% 역성장을 전망했으나 2021년(5.0%), 2022년(3.5%)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된 점, 실업률도 올해 9.3%, 21년 6.5%, 22년 5.5%로 전망한 점도 긍정적.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결국 시장이 기정 사실화 했던 V자형 회복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상승은 제한.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 경기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언급하자 지수는 재차 하락 전환. 이후 지수는 FOMC 이후 금융주가 낙폭을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 또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재 증가 우려로 약세를 이어가며 낙폭 확대. 반면, 언택트 관련 종목의 강세로 나스닥은 상승 지속. 시장은 FOMC 이후 펀더멘탈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95.69	+0.31	홍콩항셱		25,049.73	-0.03
KOSDAQ		758.62	+0.64	영국		6,329.13	-0.10
DOW		26,989.99	-1.04	독일		12,530.16	-0.70
NASDAQ		10,020.35	+0.67	프랑스		5,053.42	-0.82
S&P 500		3,190.14	-0.53	스페인		7,663.90	-1.14
상하이종합		2,943.75	-0.42	그리스		662.67	-2.36
일본		23,124.95	+0.15	이탈리아		19,758.01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택트 Vs. 경기 민감주

세계 최대 영화관 운영회사인 AMZ(+5.01%)는 회사채 발행과 구조조정등을 발표하며 파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부각되자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네마크(-6.00%), 마커스(-11.18%)등 여타 영화관 업종은 실적 부진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델타항공(-7.40%)은 물론 제트블루(-11.12%), 보잉(-6.15%) 등 항공업종은 JP모건이 항공 이용객 수 증가 속도가 약하다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투자의견을 하향 하자 급락했다. 웰스파고(-8.95%)는 대출 부실 우려를 발표하자 급락했다. 이와 더불어 연준 발표로 국제금리가 하락폭을 키우자 씨티그룹(-6.12%), JP모건(-4.05%) 등 대형 은행주와 BOK파이낸셜(-8.20%) 등 지방은행등도 급락했다. 마이크론(-1.28%)은 클라우드 주문 불확실성, 메모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자 하락했다.

반면, 코로나 재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MS(+3.71%), 아마존(+1.79%), NVIDIA(+3.55%) 등 데이터 센터 향 기업들이 급등했다. 세일즈포스(+4.32%)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블리자드(+2.53%) 등 게임주, 줌 비디오(+7.59%) 등 엔택트 관련주도 급등했다. 테슬라(+8.97%)는 머스크가 상업용 트럭 대량 생산할 때라고 발표하자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7.30%	대형 가치주 ETF(IVE)	-2.06%
에너지섹터 ETF(OIH)	-7.75%	중형 가치주 ETF(IWS)	-2.69%
소매업체 ETF(XRT)	-2.33%	소형 가치주 ETF(IWN)	-4.06%
금융섹터 ETF(XLF)	-3.74%	대형 성장주 ETF(VUG)	+0.67%
기술섹터 ETF(XLK)	+1.67%	중형 성장주 ETF(IWP)	-0.3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2%	소형 성장주 ETF(IWO)	-1.61%
인터넷업체 ETF(FDN)	+0.28%	배당주 ETF(DVY)	-2.29%
리츠업체 ETF(XLRE)	-1.8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3%
주택건설업체 ETF(XHB)	-1.2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1%
바이오섹터 ETF(IBB)	+0.32%	미국 국채 ETF(IEF)	+0.75%
헬스케어 ETF(XLV)	-0.16%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43%	물가연동채 ETF(TIP)	+0.77%
반도체 ETF(SMH)	+0.51%	Long/short ETF(BTAL)	+5.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21.81	-4.92%	+2.60%	+13.74%
소재	366.84	-1.11%	+0.62%	+14.56%
산업재	611.50	-2.38%	+1.70%	+19.54%
경기소비재	1,061.21	-0.40%	+2.66%	+13.92%
필수소비재	616.58	-0.15%	+0.75%	+4.63%
헬스케어	1,193.84	-0.14%	+0.25%	+2.95%
금융	416.70	-3.75%	+1.54%	+18.13%
IT	1,828.24	+1.69%	+4.51%	+11.40%
커뮤니케이션	187.13	-0.26%	+1.91%	+9.38%
유틸리티	308.93	-0.54%	-0.69%	+9.87%
부동산	227.30	-1.91%	+0.79%	+16.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속 외국인 선물 동향 주시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1%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73%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FOMC 를 통해 2022 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했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은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언급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해야 될 수단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재 증가 등을 감안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 속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마이크로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증시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담이 높아진 항공, 에너지, 소매판매 업종이 부진했으며, 금융주도 대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발표한 웰스파고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물량 증가를 언급하자 1,000 달러를 상회했으며, 클라우드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진 일부 대형 기술주는 전일에 이어 상승을 이어갔다. 이러한 종목별 차별화는 한국 증시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언택트 관련 종목 중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인 점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 될 수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가 누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베이스는 -0.40pt 을 기록하고 있어 현물 매도가 출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지수 하락

5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8% 하락했으며 중고차 가격 또한 0.4%, 의류 가격이 2.3%, 운송이 3.6% 하락한 점이 영향을 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EIA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572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해 예상(-120만 배럴)과 달리 크게 증가하며 하락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준이 2022년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연준은 불확실성을 감안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양정책 지속 기대가 높아진 점이 상승 요인 이었다.

달러화는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며 약세폭이 축소되었으며 엔화는 달러 약세에 더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다. 유로화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폭이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연준의 FOMC 직후 일드 캡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상승하기도 했으나 2022년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폭을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재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부각시켜 낙폭이 커졌다.

금은 FOMC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그러나 FOMC 이후 제로 금리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 외로 1.5% 넘게 상승 중이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를 기다리며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9.60	+1.69	+6.19	Dollar Index	96.127	-0.20	-1.18
브렌트유	41.73	+1.34	+4.88	EUR/USD	1.1375	+0.31	+1.26
금	1,720.70	-0.07	+0.93	USD/JPY	107.14	-0.58	-1.62
은	17.796	+0.01	-0.90	GBP/USD	1.2747	+0.15	+1.37
알루미늄	1,627.50	+1.37	+3.76	USD/CHF	0.9436	-0.76	-1.83
전기동	5,907.00	+2.30	+6.92	AUD/USD	0.7	+0.56	+1.14
아연	2,020.50	+0.15	-0.05	USD/CAD	1.3407	-0.07	-0.65
옥수수	326.25	-0.38	+0.69	USD/BRL	4.9703	+1.43	-1.87
밀	506.25	+0.35	-1.12	USD/CNH	7.054	-0.32	-0.89
대두	877.00	+0.06	+1.24	USD/KRW	1191.20	-0.54	-2.10
커피	98.55	-1.15	-1.99	USD/KRW NDF1M	1190.37	-0.66	-2.0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35	-9.08	-1.13	스페인	0.673	+3.90	+6.60
한국	1.385	+0.30	-3.20	포르투갈	0.637	+4.70	+6.60
일본	0.025	+0.50	+0.90	그리스	1.374	-7.30	-12.20
독일	-0.331	-2.20	+2.30	이탈리아	1.549	+5.00	-0.30